

AI Agent

디지털 신산업 생산성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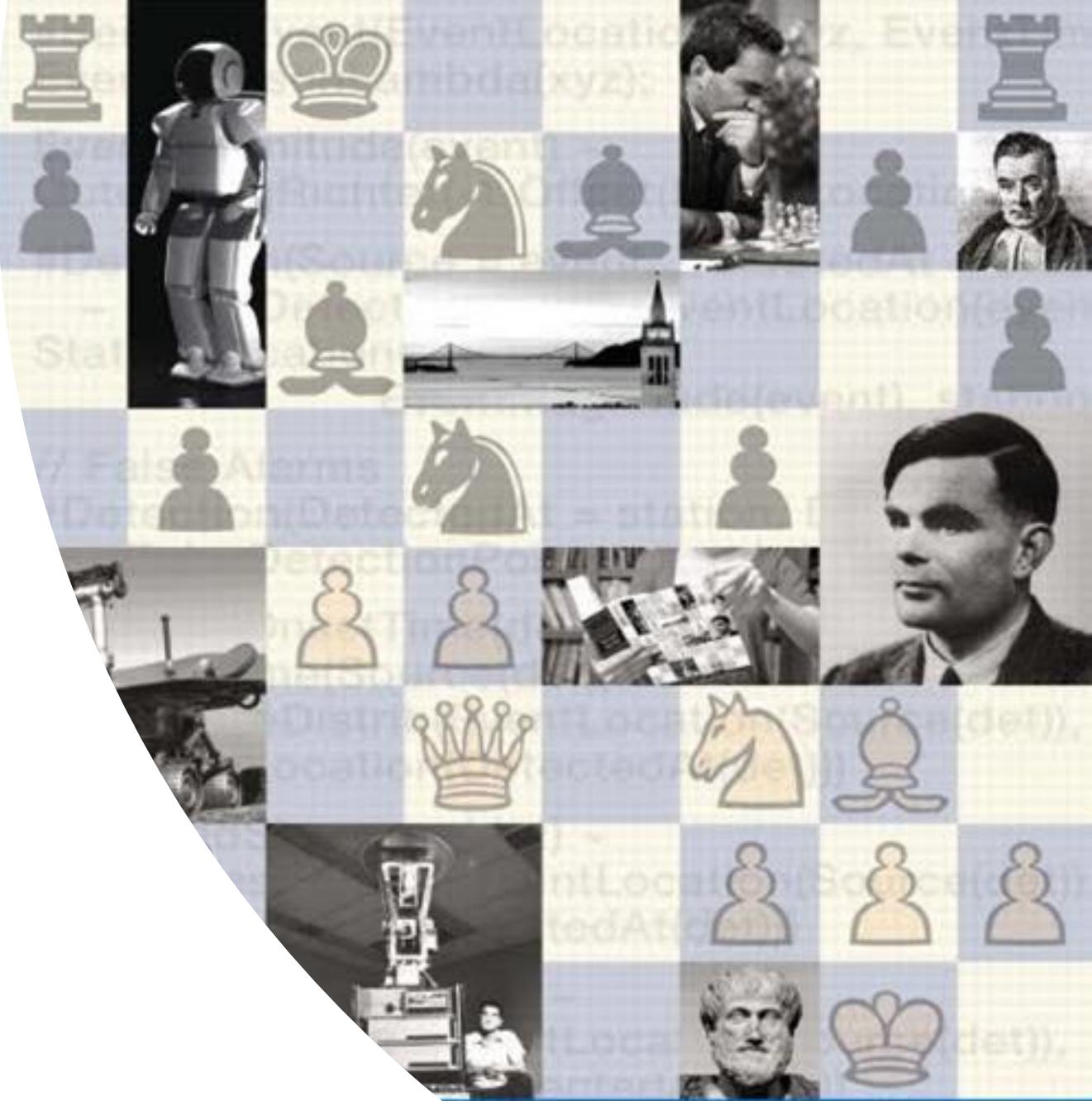
2018.10.05 시너지벤처파트너스(주) 대표이사 구태훈

Intelligent agents

An **autonomous** entity which observes **through sensors** and acts upon an environment using actuators (i.e. it is an agent) and directs its activity towards **achieving goals** (i.e. it is "rational", as defined in economics^[1]).

Intelligent agents may also **learn or use knowledge** to achieve their goals.

Russell, Stuart J.; Norvig, Peter (2003),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지능형
에이전트

Autonomous

Through **sensors** and acts upon
an environment

Achieving **goals**

Rational

Learn or use **knowledge**

Rational

- A rational agent takes actions **it believes** will achieve its goals.
- **Rational ≠ Omniscience**
- **Rational ≠ Success**

영화 속 지능형 에이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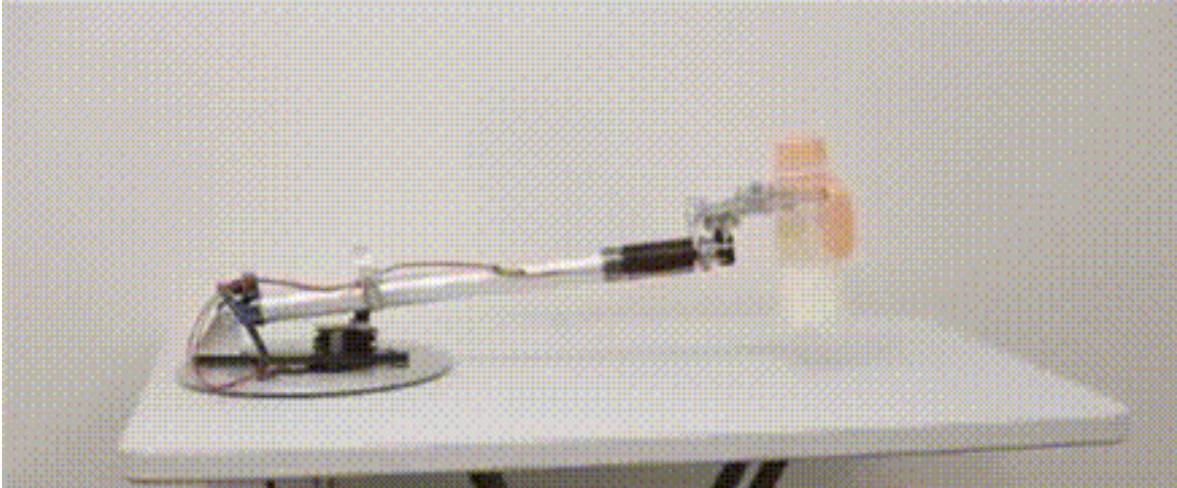




Wake up. Daddy's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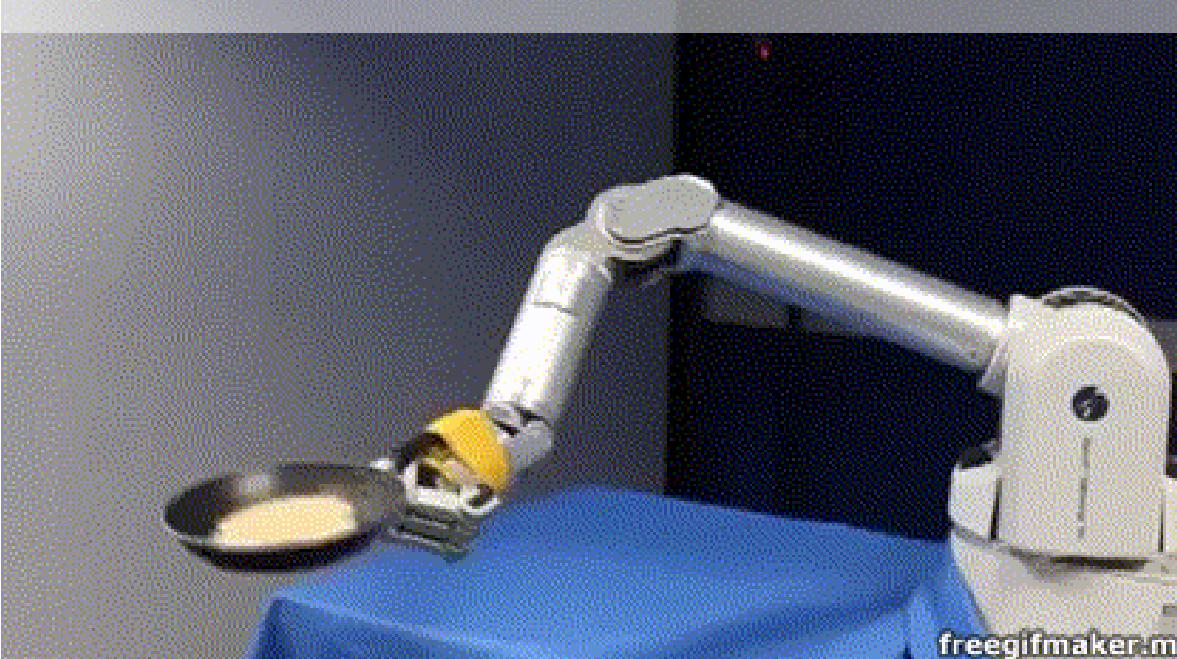
현실 속 지능형 에이전트



Useless Duck Company
freegifmaker.me
Boston Dynamics | TED



freegifmaker.me



freegifmaker.me



freegifmaker.me

ARTICLE PREVIEW

[view full access options ▾](#)

2017.10.19. Alpha Go Zero

NATURE | 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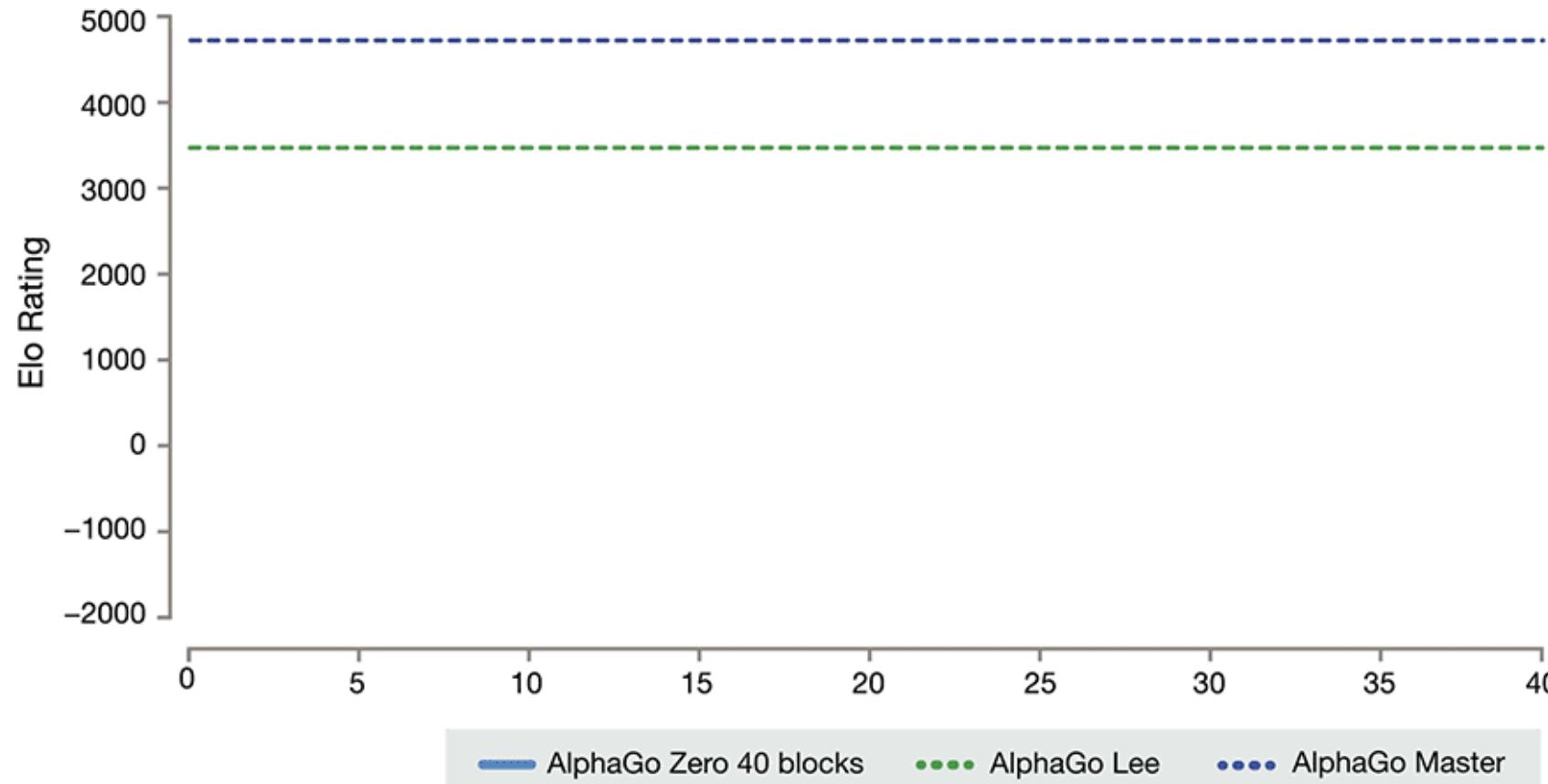


[日本語要約](#)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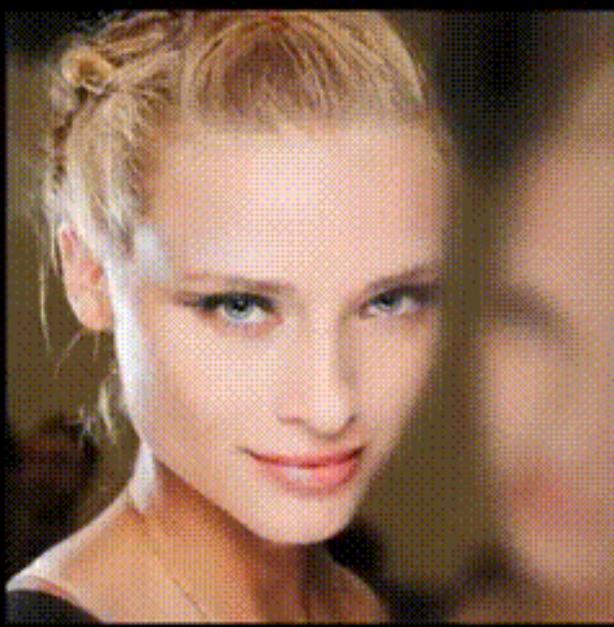
David Silver, Julian Schrittwieser, Karen Simonyan, Ioannis Antonoglou, Aja Huang, Arthur Guez, Thomas Hubert, Lucas Baker, Matthew Lai, Adrian Bolton, Yutian Chen, Timothy Lillicrap, Fan Hui, Laurent Sifre, George van den Driessche, Thore Graepel & Demis Hassabis

Alpha Go Zero (강화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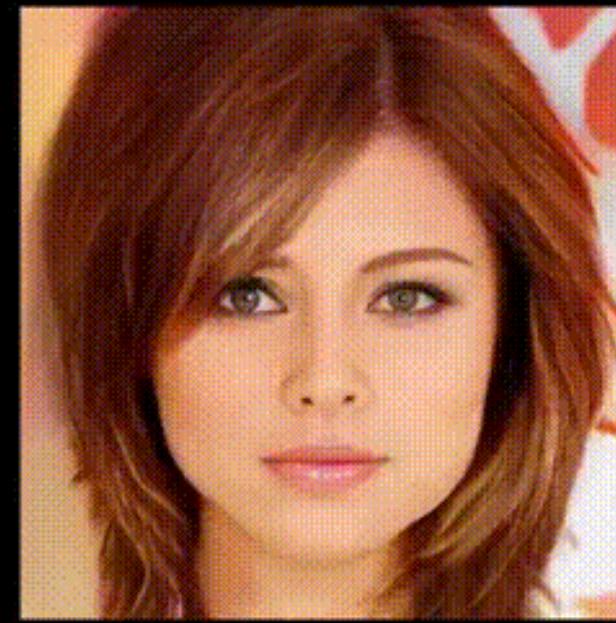


GA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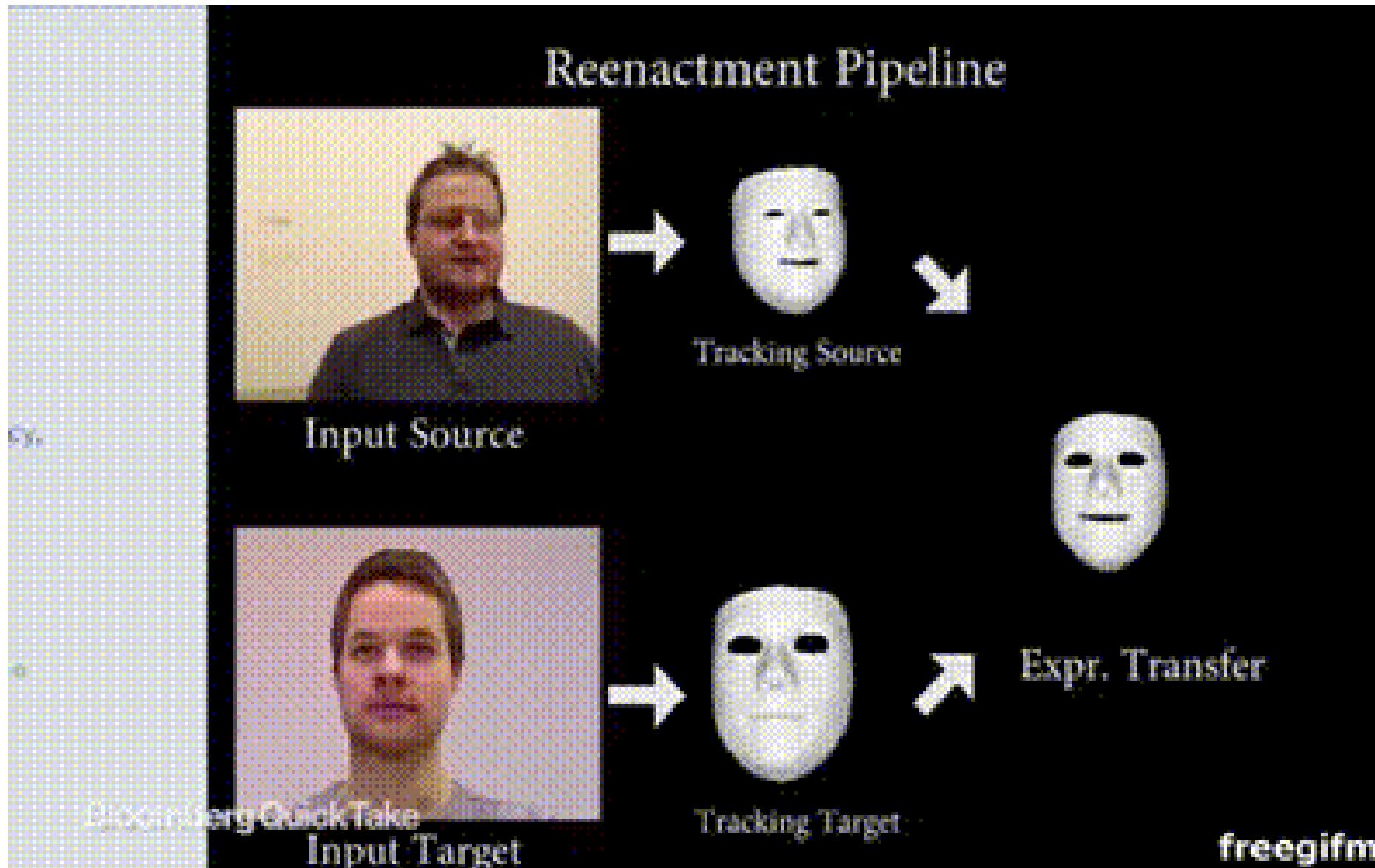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Ian Goodfe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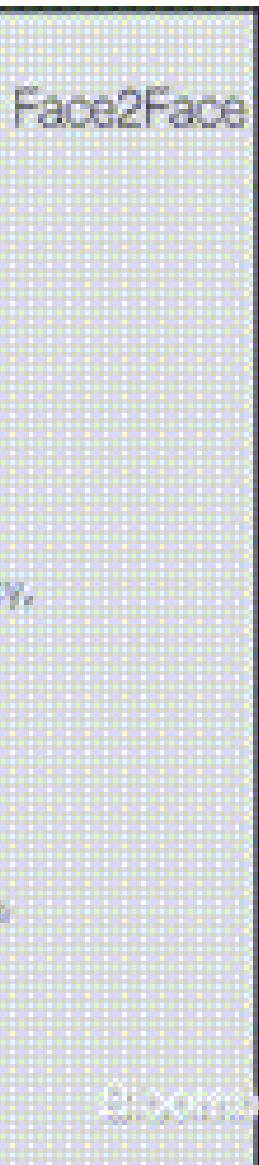


freegifmaker.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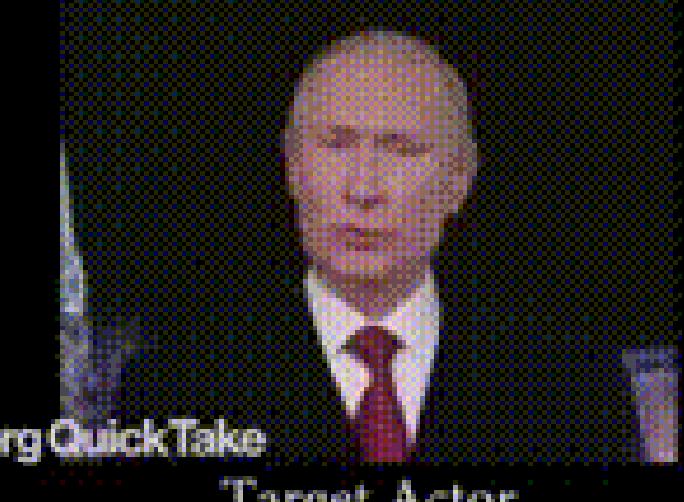
freegifmaker.me





Source Actor

Face2Face



eng QuickTake

Target Actor

Real-time Reenactment



Reenactment Result

freegifmaker.me

AI defeats top doctors in competition 2:0

87% vs 66% / 83% vs 63%



슈퍼컴 아닌 노트북 AI도 인간 포커고수 꺾었다

송고시간 | 2017/03/03 09:05



[리걸테크가 로펌 대체할까?] 미국에서는 이미
'AI 검사'도 등장

인공지능의 '직관' 이용해 '불완전 정보 게임' 정복

[중앙일보] 입력 2018.06.09 00:02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법률 서비스 비용 줄여주는 스타트업 속속 나와

사람처럼 전화하는 AI '구글 듀플렉스', 다음 목표는 '콜센터'



최종수정 2018.07.09 08:07 기사입력 2018.07.09 08:07

[댓글 쓰기](#)

전자 "AI 작곡,"



구글 듀플렉스를 대형 보험사 콜센터에 적용하는 방안 논의중

[ajournal-e.com](#)

구글은 부인..."개인고객 예약 돋는 것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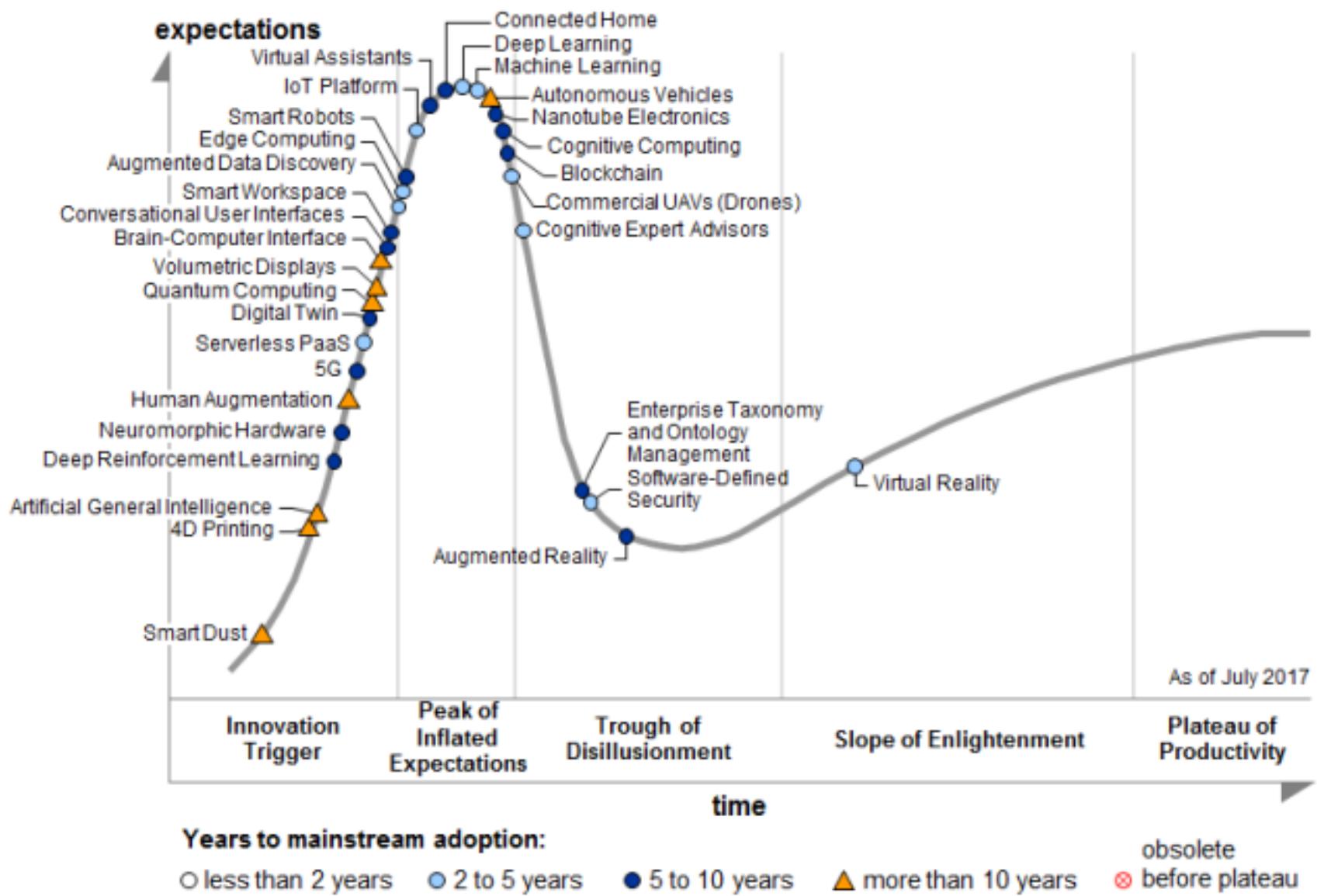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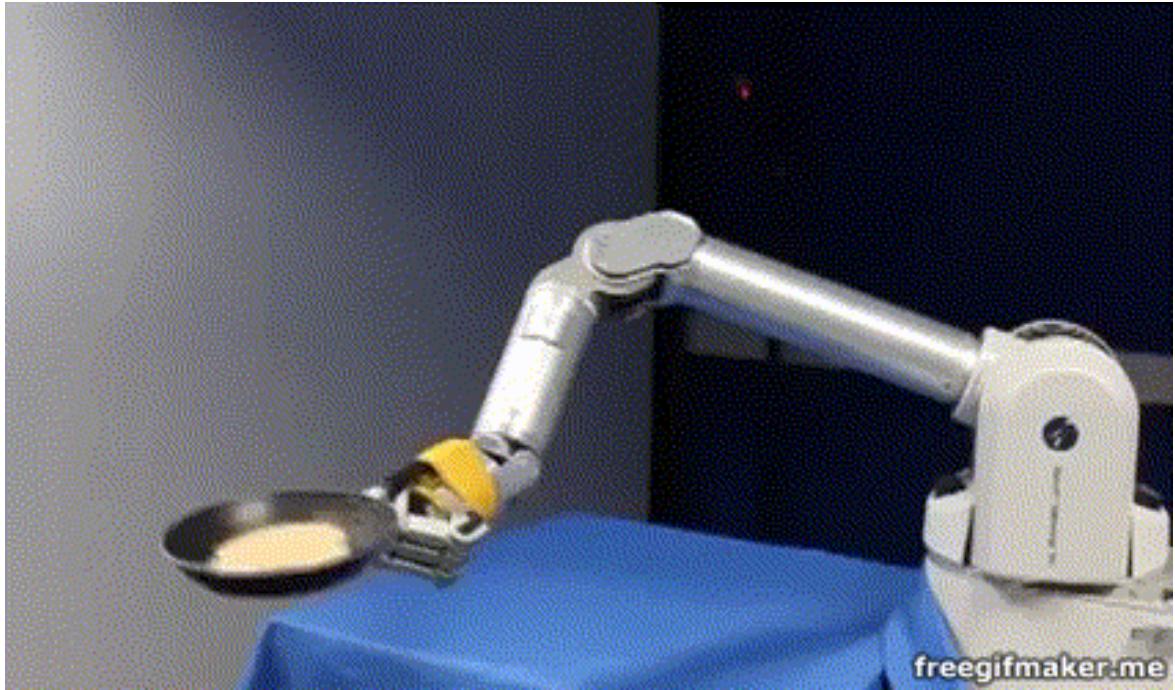
1 0

2 0

Texas Hold'em(HUNL)을 기준으로 따신 경우의 수는 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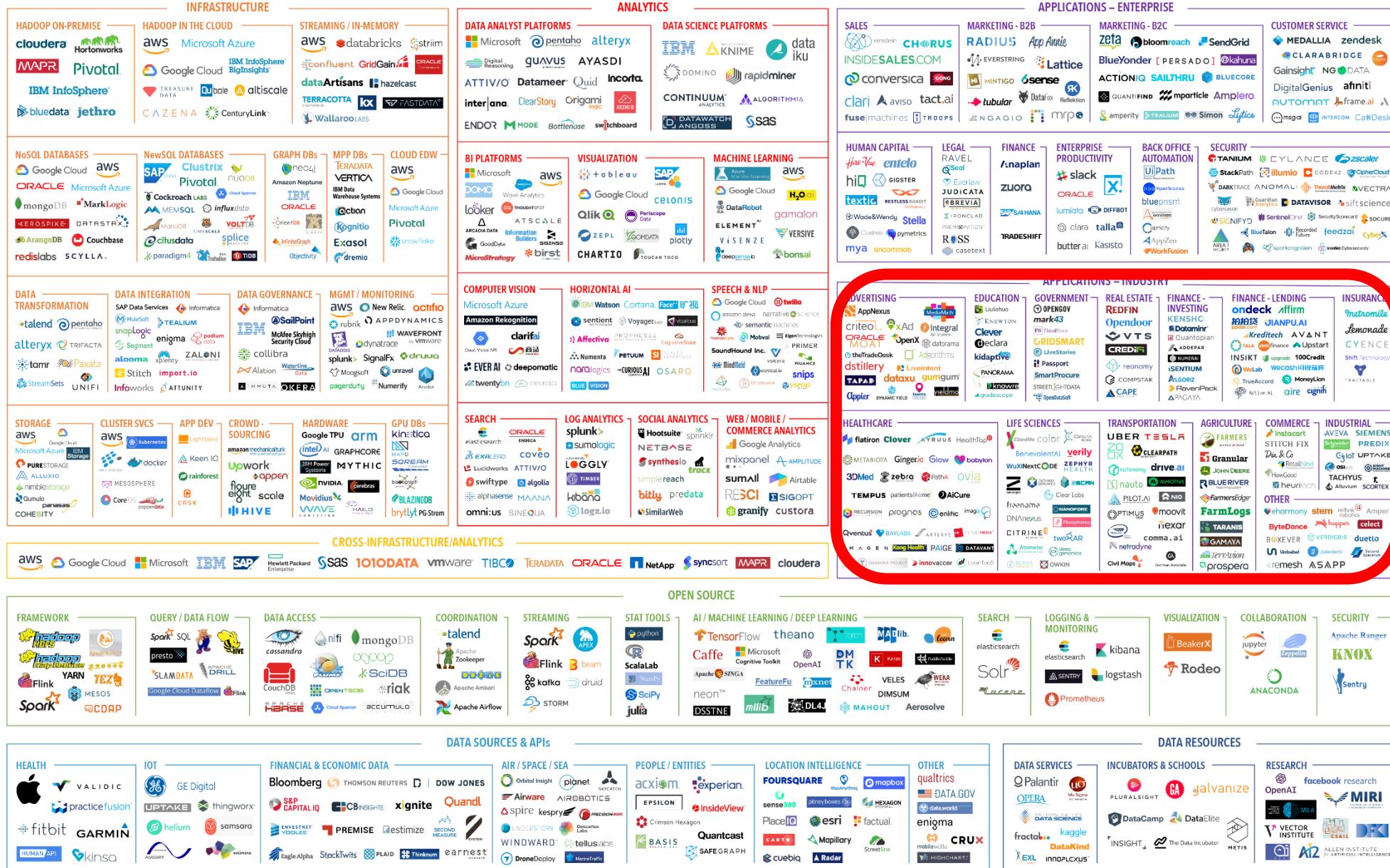




**Successfully learned skill
after 50 trials**

freegifmaker.me

BIG DATA & AI LANDSCAPE 2018



APPLICATIONS – INDUSTRY

ADVERTISING



EDUCATION



GOVERNMENT



REAL ESTATE



FINANCE - INVESTING



FINANCE - LENDING



INSURANCE



HEALTHCARE



LIFE SCIENCES



TRANSPORTATION



AGRICULTURE



COMMERCE



INDUSTRIAL



연구보고서 2016-005

국내 지능정보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actual status of the domestic
intelligence-information industry

-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Focused on software

안성 원/추형 석/서은주/김형준/한상기

2017.04.

지능정보SW 지형도(LandScape)

핵심 기술



기업/공공 응용



산업 응용



연관기술



<표 4-4> 산업분야 별 참여 기업

산업	해당기업
게임	스캐터랩
광고	일리시스 카디날정보기술 퓨처로봇
교육	그리드스페이스 나눔기술 디에스티로봇 마인즈랩 셀바스AI 셀웨어 알리 카디날정보기술
국방	그리드스페이스 모비젠 셀웨어 솔트룩스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씨사이드코리아 애인소프트 에버트란 엑센 일리시스 정상라이다 휴먼아이씨티
금융	다이퀘스트 디셈버앤컴퍼니 마인즈랩 모비젠 선재소프트 셀웨어 솔리드웨어 솔트룩스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애인소프트 엑센 와이즈넛 위세아이텍 인피니그루 카디날정보기술 코난테크놀로지 코노랩스 퓨처로봇
농업	셀웨어
미디어콘텐츠	그리드스페이스 솔트룩스 스캐터랩 위세아이텍 코난테크놀로지 한컴인터프리
법률	나눔기술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에버트란 와이즈넛
소매	없음
에너지	모비젠 선재소프트 아임클라우드
유통	아임클라우드 위세아이텍 인피니그루
의료	나눔기술 네오팩트 루닛 뷰노코리아 선재소프트 셀바스AI 씨사이드코리아 와이즈넛
자동차	아임클라우드 알리 정상라이다
제조	애인소프트 엑센 인피니그루
관광	한컴인터프리
스마트홈(로봇)	다이퀘스트 디에스티로봇 마인즈랩 셀바스AI 알리 정상라이다 코난테크놀로지 코노랩스 클루닉스 퓨처로봇 휴먼아이씨티
일반개인용	다이퀘스트 디에스티로봇 스캐터랩 씨사이드코리아 코노랩스 클루닉스 휴먼아이씨티

<표 3-19> 지능정보 소프트웨어 기업의 외부투자유치 금액

외부투자유치금액	기업수(개)	비율	합계 금액	평균(백만원)
없음	18	51.4%	-	-
10억 미만	7	20%	2,341	334
10억 이상~50억 미만	6	17.1%	12,500	2,083
50억 이상	4	11.4%	60,800	15,200
전체 계	35	100%	75,641	4,449

<표 3-20> 외부 투자유치 금액 기준별 기업 총괄 현황

구 분	외부투자유치금액 (%)					합계
	빈도	없음	10억 미만	10억-50 억 미만	50억 이상	
전체	(35)	51.4	20.0	17.1	11.4	100.0
설립년도	4년 미만	(11)	18.2	45.5	18.2	18.2
	4년 이상 10년 미만	(7)	28.6	14.3	42.9	14.3
	10년 이상 15년 미만	(4)	75.0	-	-	25.0
	15년 이상 20년 미만	(11)	81.8	9.1	9.1	-
	20년 이상	(2)	100.0	-	-	100.0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사무·판매·기계조작 직군 대체 가능성 높아

김건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일자리의 43%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일자리의 분포는 특정 직업과 산업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는 3대 고위험 직업으로 나타난 사무직, 판매직, 기계조작 종사자가 전체 고위험 일자리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3대 고위험 산업에 고위험 일자리의 약 6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및 소득별로 보면 중위층의 일자리에서 고위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중산층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의 물결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전선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공지능은 IT업계뿐만 아니라 경제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지난 해부터 시작한 “인공지능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genda)”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북미의 대표적 경제학자들이 연구진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토론토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연구진들뿐만 아니라 제프리 힌튼, 얀 레쿤 등의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들도 함께 모여서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모아서 단행본 발간을 앞두고 있다.¹

연구진들은 최종 연구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컨퍼런스 발표 자료와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이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일반목적기술’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은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었던 증기기관이나 전기와 같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어 과거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늘려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다수 제시된다.²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³ 인공지능에 의한 단기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득을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적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James Bessen(“AI and Jobs: The Role of Demand”), Austan Goolsbee(“Public Policy in an AI Economy”), Jason Furman(“Should We Be Reassured If Automation in the Future Looks Like Automation in the Past?”) 등이 대표적 저자와 연구들임.

3 Daron Acemoglu, Pascual Restrepo(“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Work”), Anton Korinek, Joseph E. Stiglitz(“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Income Distribution and Unemployment”) 등이 대표적 저자와 연구들임.

1 Ajay K. Agrawal, Joshua Gans, Avi Goldfarb,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genda”, 2018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 상위 20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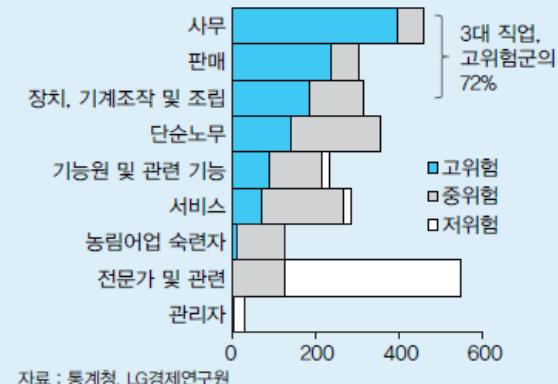
자동화 위험이 높은 상위 20대 직업			자동화 위험이 낮은 하위 20대 직업		
분류코드	직업명	대체확률	분류코드	직업명	대체확률
5302	통신서비스 판매원	0.990	2440	영양사	0.004
5303	텔레마케터	0.990	2411	전문 의사	0.004
5304	인터넷 판매원	0.990	259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004
892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0.990	1312	교육 관리자	0.007
2714	관세사	0.985	1331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0.007
3125	무역 사무원	0.985	2521	중고등학교 교사	0.008
3142	전산 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0.980	2545	학습지 및 방문 교사	0.009
3132	경리 사무원	0.970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0.011
5220	상품 대여원	0.970	2523	특수교육 교사	0.012
8212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작원	0.970	2420	약사 및 한약사	0.012
8222	신발제조기 조작원 및 조립원	0.970	139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0.014
832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0.970	2542	컴퓨터 강사	0.014
8912	가구조립원	0.970	2489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0.017
8919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0.970	2481	성직자	0.017
9991	구두 미화원	0.970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0.017
3201	출납창구 사무원	0.965	2392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0.017
3126	운송 사무원	0.960	2393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0.017
8211	섬유제조 기계조작원	0.960	1311	연구 관리자	0.018
2712	회계사	0.957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0.018
2713	세무사	0.957	2341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0.018

자료 : Frey & Osborne(2013), LG경제연구원

사무 · 판매 · 기계조작 종사자 등 3대 직업이 고위험 일자리 72% 차지

직업별 자동화 위험군 취업자수(만명)

8



우리나라 자동화 위험별 취업자 현황

7

위험군 구분	대체확률	취업자수(만명)	취업자 비중(%)
고위험	0.7 이상	1,136	43%
중위험	0.3~0.7 미만	1,036	39%
저위험	0.3 미만	486	18%

자료 : 통계청, LG경제연구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안건
제1호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201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기업, 한발 앞선 기술력 확보



글로벌 인재 선점에 총력



프랑스

연구센터 유치, 우수 인재 기반 AI 연구허브 조성

- 프랑스의 AI 권고안('18.3)



중국

국가의 대규모 선행 투자로 인력양성 및 특화플랫폼 육성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17.7)
- 중국대학인공지능인재국제육성계획('18.4)



미국

정부의 장기·선제적 투자로 민간의 경쟁력 제고 유도

- AI R&D 전략계획('16.10)
-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16.12)



1. 현황 진단

◇ 경쟁국 대비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고급 인재의 양적·질적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며, AI 기술혁신 인프라 역시 보완이 시급

* AI 성장 중요분야(지능정보산업협회, '18.2, 203명 응답) : ①기술(49.3%), ②인재(21.2%) 등

[1]. [기술] 경쟁국 대비 AI 기술경쟁력 취약

① (현황) 우리 AI 기술력은 주요 경쟁국 대비 최하위 수준을 기록

- ‘14년 대비 미국과 기술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이미 상용서비스가 활발한 해외와 < 국내외 AI 융합서비스 수준(%), IITP, '16 > 달리, 우리는 기술관심 수준을 이제 막 벗어나 일부 상용제품을 출시 중인 상황

* (해외) 켄쇼(금융), 블루리버테크(농업),
로스인텔리전스(법률), icabonX(의료)

(국내) AI스피커·챗봇 상용화 수준(CES 2018)



기술

① 장기·공공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

- 고위험·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해 중장기 투자 지속
- 공공·옹용(AI+X) 영역에서 대규모 혁신이 촉발되도록 지원 강화

1. 현황 진단

◇ 경쟁국 대비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고급 인재의 양적·질적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며, AI 기술혁신 인프라 역시 보완이 시급

* AI 성장 중요분야(지능정보산업협회, '18.2, 203명 응답) : ①기술(49.3%), ②인재(21.2%) 등

[2]. [인재] 양·질적으로 부족한 AI 우수인재 확보에 주목

① (현황) AI 분야 전반에서 연구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현상 뚜렷

- AI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미래 수요에 대비한 고급인재 확보 전망*도 불투명
 - * AI 분야 석·박사급 부족인력(IITP, '16) : 4.5천명(~'20)
- 특히, 우리 최고 대학·연구기관의 AI 연구원 수는 미국, 유럽 등 AI 기술선도국 뿐 아니라, 급부상중인 중국에도 뒤처지는 상황

< AI 분야 주요기관 연구자 현황 >



* 자료 : SciVal DB, STEPI, '16년 기준 AI 논문 출판 저자 기준(각국 최다기관 비교)('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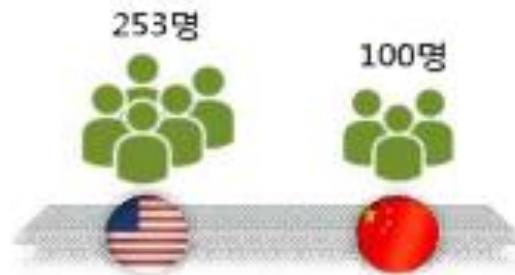
- 일부 국내 우수 연구자들의 가시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나, AI 분야 국내 연구 인력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취약

인재

[2] AI 인재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도록 인재양성에 총력

- ▶ AI 핵심·차세대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연구인력 양성
- ▶ AI를 활용한 新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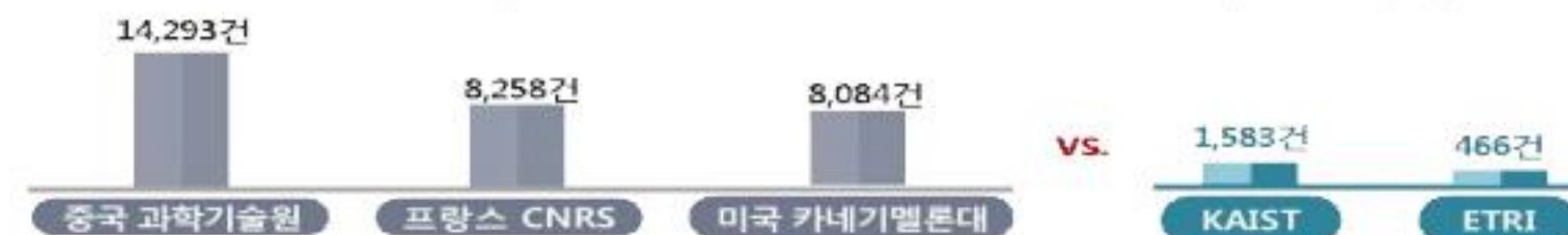
< 머신러닝 영향력 있는 학자수(AMiner, '16) >



< AI 논문 피인용 건수('05~'16, IITP) >



< 주요 대학·연구기관별 해외 vs 국내 논문 인용건 수('16년 기준) >



* 자료 : SciVal DB, STEPI, '17

1. 현황 진단

◇ 경쟁국 대비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고급 인재의 양적·질적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며, AI 기술혁신 인프라 역시 보완이 시급

* AI 성장 중요분야(지능정보산업협회, '18.2, 203명 응답) : ①기술(49.3%), ②인재(21.2%) 등

[3]. [기반] 개방·협력 기반의 AI 기술혁신 인프라 미비

① (현황)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공유·활용률도 저조하고 산·학·연의 개방형 협력 역시 미약

- 공공데이터의 개방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AI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기계학습용 데이터의 제공은 부족한 상황
- 공개 공공데이터(24,588개) 中 0.3%(68개)가 기계학습 가능 데이터이며 기계학습용 대용량 데이터셋 제공평가에서는 56위 기록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17)>



* ODB(Open Data Barometer)는 15개 분야별(지도, 국가 선거결과 등)로 기계학습용 대용량 데이터 셋의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평가, 우리나라에는 국가 선거결과만 제공(1개)

“Data is new oil”

- Clive Humby (2006)

“인공지능이 로켓이라면 데이터는 이를 추진하는 연료”

- 마이클 델 (Dell)

기반

[3] AI 혁신이 자생적 발현되도록, 개방형 연구 기반 조성

- ▶ AI데이터, 컴퓨팅 자원이 제공·활용되고 연구역량이 결집되는 체계 구축
- ▶ 자율적 경쟁과 협업이 가능한 AI 기술혁신의 장 마련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R&D 생태계 확보

향후 5년간(18~'22)
2.2조원 투자



W



인



자



지

AI 데이터 1.6억 건 구축
* 한국어 이해 152.7억 어절 구축

우수 인재 5천 명 확보

세계 4대 AI 강국 도약



국내 경쟁력을 고려한 추진 전략

정부 서비스 제공·공공 Data 활용 분야
(국방, 의료, 안전 등) 중심 핵심기술 개발



최고급 인재 양성, 기업 AI 서비스
개발 지원 및 Data·컴퓨팅 파워 제공 중점

핵심기술·AI 기술역량 조기 확보

- AI 대형 공공프로젝트 추진
 - 공공분야(국방, 안전, 의료 등) 중심 Full Scale(핵심기술=응용기술) 개발
- AI 그랜드 챌린지 확대 개편
- AI 국가전략프로젝트 재편
 - 기술, 환경변화 고려 목표 상향 조정
- AI 반도체 기술 개발 추진
 - 10년간(20~'29년) 약 1조원 투입(예타)

01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력 확보

핵심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

- 인공지능 대학원 신설
 - 2018년 2개 대학원 → 2022년 6개 대학원
- 기초 대학연구센터 AI 연구 지원 강화
(ITRC, 선도연구센터 등)

02 최고급 인재 양성

혁신 지원 통합 제공

- AI 허브 구축
 - 학습용 데이터 1.6억 건 구축 개방
 - 한국어 말뭉치 152.7억 어절
 - 슈퍼컴 5호기 지원 할당(10%) 및 GPU 기본 전용시스템 지원

03 개방 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AI 기술혁신의 장 마련

- 공공민간 온라인 챌린지 플랫폼 구축
(기정) Challenge.kr 구축

응용분야·AI+X(태분야) 대규모 혁신

- AI + 신약
 -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5년 → 1년)
- AI + 미래소재
 - 개발주기 절반 단축

기초과학·차세대 AI 이론적 기반 마련

- 뇌과학 연구
 - 사람에 가까운 AI 개발

DATA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 양성

- AI 프로젝트형 교육
 - AI 최고전문가 6개월 집중 면토링 → 산업맞춤형 청년 인재 600명 양성
- AI 실무 인재 교육
 - AI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 운영
 - '22년 온라인 공개 강좌(MOOC) 70개 운영

연구 역량 결집

- AI 브레인랩(연구기반) 마련
 - 권역별 지정 운영
 - 로봇, 자율차등 지역 전략산업 접목 분야 집중 지원

윤리적 AI 기술 연구

- 인공지능 설계 단계부터 인간 윤리규범 내재화
- 모니터링 기술 확보

응답 기업 97% AI 도입 계획 있다



Q. 5년 이내 AI 기술 도입 계획

■ 있다 ■ 없다

16%

97%

2017

2018



자료 제공: EY한영

무엇이 AI 도입을 가로막나? 기업이 직면한 5가지 고민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 및 기술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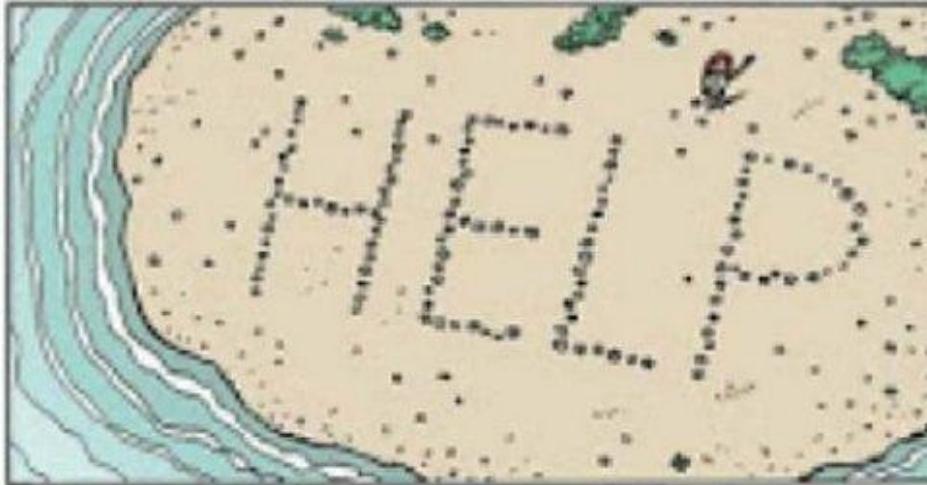
개념증명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아직 미흡하기만 한 규제 상황

데이터의 품질

업계에 만연한 불신과 불안

<http://www.ciokorea.com/news/38294>



I KNOW MACHINE
LEARNING



GATO 謝謝 thanke
THANK YOU 謝謝
SANTAK 多谢 vielen dan

- 현직 Venture Capitalist / 대표펀드매니저
- ML Reinforcement Learning Researcher
- Computer Science 전공
- Software Engineer 출신 (넥슨, 카카오 등)
- OpenAI 주최 Reinforcement Learning Contest 10위 (2018.5월)
- Dean@School of AI (non-profit organization)
- KR 20160927 객체를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등록특허 10-1660247)

